



최근, 토양의 관리 부족으로 인해 농작지의 질이 떨어져 비옥도도 저하되고 있다. 또, 자연 환경의 변화나 인간 활동에 의해 천연 식물의 종수도 감소하고 있다.

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몽골은 100년간에 자연, 기후 현상, 인간 활동에 의해 남몽골의 삼림 경계선이 점점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삼림면적의 40%에 적용되고 있는 벌채법이 국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

삼림면적의 1/4은 이미 인간의 활동, 화재 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4년간에 걸쳐 전 면적의 약 50%가 대가뭄이 발생하여 최근 3년간, 먹이 부족으로 수천만의 가축이 죽어 몽골 경제에 큰 손해를 끼쳤다.

지구온난화로 기후가 변화하고 토양이 건조해진다. 그리고 사막화가 진행되어 하천, 호수 등의 수가 감소해, 토양의 비옥도도 저하하고 침식현상이 심해진다. 담수도 줄어, 결과적으로는 환경상태가 나쁜 곳에서 안정된 곳으로 인구가동이 심해진다.